

작은 토카라, 가고시마의 토착마

토카라 말은 가고시마현이 원산지인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작은 일본 재래종 말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총 여덟 종류의 재래종 말이 있습니다. 여덟 종 모두 아시아 대륙에서 유래했으며, 최초의 유입 시기는 4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각 품종은 일본의 특정 지역과 연관이 있으며, '토카라'라는 이름은 가고시마 해안에서 약 300km 떨어져 있으며 작고 외딴 섬으로 이루어진 토카라 열도에서 유래합니다. 이 말들은 1900년경 토카라 열도로 들어왔으나 점차 독자적인 품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토카라 말은 선사시대 말과 크기가 비슷하며, 평균 키는 겨우 114.5cm(약 11.25 핸드), 평균 체중은 198kg입니다. 털과 갈기는 일반적으로 짙은 갈색입니다.

과거 토카라 말은 토카라 열도에 많았고, 장작을 나르거나 사탕수수를 압착하는 등 역용 동물로 이용되었습니다. 토카라 말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동안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해 1960년대에는 단 32마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 마리는 보호와 번식을 위해 가고시마 본토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약 100마리의 토카라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부스키의 가이몬산록 자연공원에 서식하고 있으며, 낮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방목장으로 돌아갑니다.